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March 2025 Issue | Vol. 19

SPECIAL POINTS OF INTEREST

- 1월 공장 생산량 증가 가속화
— page 1
- 세계은행, 필리핀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 세수 증대 가능
— page 2-3
- DOL, 폭염 심화에 따라 유연 근무제 권고 — page 3
- 12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85.18% 급감... 11년 만의 최저치 — page 4-5
- BIR, 소득세 신고 조기 제출 촉구...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 — page 6
- 일로코스 노르테,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주목 — page 6
- NTC, SIM 카드 등록 시 대면 확인 의무화 검토 — page 6

UPCOMING EVENT

- [April 03, 2025] KCCP 제30회 정기 총회 — page 7

1월 공장 생산량 증가 가속화

March 09,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제조업 부문이 올해 초 강한 출발을 보이며 1월 생산량이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필리핀 통계청(PSA)이 밝혔다.

PSA의 '선택된 산업의 월간 통합 조사'(Monthly Integrated Survey of Selected Industries) 예비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의 생산량 지수를 나타내는 생산량 지수(VoPI)는 2024년 12월 0.4% 증가에서 2025년 1월 3.2%로 더 빠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Photo shows workers at a textile factory in Manila.

STAR / File

작년 1월에는 제조업의 VoPI가 0.3% 감소를 기록했다.

PSA는 VoPI의 빠른 성장세가 주로 식품 제조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식품 제조업은 지난해 12월 0.3% 감소에서 올해 1월 9.4% 증가로 전환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VoPI 성장 가속화의 또 다른 요인은 기초 금속 제조업으로, 전월 19.5% 감소에서 2.4% 감소로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기계 및 장비 생산도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였으며, 1월 성장률은 전월 40.9%에서 62.1%로 상승했다.

나머지 19개 산업 부문 중 11개 부문이 1월에 증가세를 보였다. 해당 산업 부문에는 전기 장비, 화학 및 화학 제품, 목재·대나무·등나무 제품 및 관련 제품, 음료, 담배 제품,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 가공 제품, 섬유,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가구, 신발 및 의류를 포함한 가죽 및 관련 제품이 포함된다.

한편,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산업 부문으로는 컴퓨터·전자·광학 제품, 기타 제조업 및 기계·장비의 수리 및 설치, 기초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 코크스 및 정제 석유 제품, 운송 장비,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 종이 및 종이 제품 산업이 포함되었다.

생산액 지수(VaPI) 또한 지난해 12월 0.4% 증가에서 올해 1월 4%로 더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1월, VaPI는 1.4% 감소를 기록한 바 있다.

PSA는 "2025년 1월 제조업의 연간 VaPI 증가율 가속화는 주로 식품 제조업의 연간 성장률이 전월 1.4%에서 9.3%로 상승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VaPI 성장세를 견인한 또 다른 주요 요인은 기초 금속 제조업의 감소폭 둔화로, 전월 18.4% 감소에서 1월 1.2% 감소로 축소되었으며, 전기 장비를 제외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전월 45% 증가에서 65.7% 증가로 성장 폭이 확대되었다.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1월 75.9%로, 전월 75.6%, 전년 동월 74.5%보다 상승했다.

PSA는 "모든 산업 부문이 1월 동안 60% 이상의 가동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1월 가장 높은 가동률을 보인 산업 부문은 인쇄 및 기록 매체 복제(83.3%),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82%), 기타 제조업 및 기계·장비의 수리 및 설치(80.7%)였다.

PSA에 따르면, 응답한 전체 사업체 중 26.5%가 90100%의 완전 가동 상태에서 운영되었으며, 43.2%는 7089%의 가동률을 유지했다. 반면, 30.3%는 70% 미만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3/09/2426886/factory-output-growth-accelerates-january>

세계은행, 필리핀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로 세수 증대 가능

March 10, 2025 | Aubrey Rose A. Inosante | BusinessWorld



EMPLOYEES arrange products inside a grocery store in Quezon City. The Philippines' 12% value-added tax rate is relatively higher compared with Southeast and East Asian countries, an analyst said. —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세계은행(World Bank)은 필리핀이 부가가치세(VAT) 기반을 확대하고 세정(稅政)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세수 증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 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국가 담당 이사 자페르 무스타파오글루(Zafer Mustafaoglu)는 *BusinessWorld*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필리핀 정부는 준수율을 높이고 면세 및 특별 세율을 줄임으로써 부가가치세 수입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2월 18일 "정부는 세정 개선을 통해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세법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및 재산의 판매·교환·대여 또는 용역 제공 시 부과되는 간접세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세금의 한 형태다.

무스타파오글루 이사는 필리핀이 세정 개선뿐만 아니라 세제 정책의 허점을 해결하고 개혁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랄프 G. 렉토(Ralph G. Recto) 필리핀 재무부(DoF) 장관은 *BusinessWorld*에 "우리는 부가가치세 기반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라고 밝혔다.

페르디난드 R.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거주 및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DSP)에 12%의 부가가치세(VAT)를 부과하는 공화국법 제12023호에 서명했다.

재무부(DoF)에 따르면, 이 법을 통해 올해 약 72억 5천만 페소의 세수가 예상되며, 2026년에는 213억 7천만 페소, 2029년에는 262억 7천만 페소가 추가로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네, 우리는 세금 행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금 행정에는 디지털화 프로그램도 포함됩니다. 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노인층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가치 체계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렉토 상원의원이 말했다.

IMF는 2022년 보고서에서 필리핀 정부가 부가가치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면세 및 영세율 혜택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에는 '확대 노인복지법(Expanded Senior Citizens Act)'에 따라 12%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층도 포함된다.

한편, 마닐라에 본부를 둔 싱크탱크 '미니멀 거버먼트 씹커스(Minimal Government Thinkers)'의 비엔베니도 S. 오플라스 주니어 회장은 필리핀의 조세 기반 확대 필요성에 대한 세계은행(WB)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부가가치세율은 오히려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는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2%에서 7~8%로 낮추고, 원자재 농산물과 수산물 외에는 모든 면세 혜택을 없애는 방식으로 조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오플라스 회장은 말했다.

그는 필리핀의 12% 부가가치세율이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을 일반 상품 판매 및 수입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인도네시아가 12%로 그 뒤를 잇는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표준 세율), 라오스는 10%이며, 싱가포르의 9%, 태국은 7%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미얀마는 부가가치세(VAT)를 적용하지 않지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0~15%의 상업세(commercial tax)를 총매출세(turnover tax)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일본의 부가가치세율도 10%이다. 홍콩은 부가가치세, 재화 및 용역세(GST),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P&A Grant Thornton의 세무 전문가 엘리너 L. 로크(Eleanor L. Roque)는 거의 모든 거래가 이미 부가가치세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세금 인상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 판매와 같은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할 경우, 취약 계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면세 혜택이 유지되는 것입니다."라고 로크 씨는 *BusinessWorld*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로크 씨는 규제 당국이 납세자의 세금 준수율을 높이고, 세금 규정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필리핀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이웃 국가들에 비해 '세금이 적은 나라'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싱크탱크 IBON 재단의 호세 엔리케 "씨니" A. 아프리카(Jose Enrique "Sonny" A. Africa) 사무국장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확대하면 저소득 가구의 소비 패턴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Cont. page 3]

세계은행, 필리핀 부가가치세 기반 확대로 세수 증대 가능

[Cont. from page 2]

"특히 필리핀처럼 소득과 부의 격차가 큰 국가에서는 세제 설계가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닌 공정성(equity) 원칙에 철저히 기반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VAT)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는 1989년에는 국세청(BIR) 세수의 7.9%를 차지했으나, 2023년에는 18.9%까지 상승했다.

아프리카 사무국장은 필리핀의 "근본적으로 역진적인(regressive) 부가가치세 제도"에서 정부가 오히려 명품 자동차, 보석, 디자이너 브랜드 제품 및 기타 고급 상품에 대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식품 및 농산물,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특정 물품, 도서 등의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3/10/658140/world-bank-says-phl-can-boost-revenues-by-expanding-its-vat-base/>

DOLE, 폭염 심화에 따라 유연 근무제 권고

March 10, 2025 | Justine Xyrah Garcia | BusinessMirror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는 특히 건설업과 같은 고위험 산업에서 극심한 폭염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권장하고 있다.

BusinessMirror

A broader look at today's business

이 제안은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 후, 정오의 강한 햇볕을 피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다시 근무하도록 근무 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우리는 실외 근로자들과 강한 열기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가능하면 근무 시간을 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오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사이에는 가급적 작업을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근로조건국(Bureau of Working Conditions) 국장 앨빈 B. 쿠라다(Alvin B. Curada)는 금요일 인터뷰에서 밝혔다.

쿠라다 국장은 "우리는 건설 산업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햇볕에 노출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개인 보호 장비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극심한 더위를 피할 수 없는 작업의 경우, 노동부는 2~3시간마다 30분간의 휴식을 도입하고,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버디 시스템(buddy system)'을 채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쿠라다 국장은 또한 폭염 위험이 실외 근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사업장 역시 적절한 환기 시스템을 갖춰야 하며, 열사병과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어컨이 있는 직장이라도 출퇴근 중 폭염 노출을 줄이기 위해 근무 시간 조정이나 근무 형태 변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들은 어떤 조정이 가능한지 논의하고, 어떤 부서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쿠라다 국장은 덧붙였다.

쿠라다 국장은 또한 DOLE가 이러한 예방 조치를 시행하도록 고용주들에게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장관 비엔베니도 E. 라게스마(Bienvenido E. Laguesma)가 2023년에 발행한 **노동 권고문 8호(Labor Advisory 8)**를 언급하며, 이 권고문은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근로자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직면한 위험을 평가하도록 기업에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장 사항 외에도, 직장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들은 **노동부 명령 198호(Department Order 198, DO 198)**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 산업의 경우, 개인 보호 장비(PPE)를 제공하지 않으면 하루 최대 5만 페소(P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쿠라다 국장은 경고했다.

DO 198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 위반에 대한 벌금은 위반 사항에 따라 2만 페소(P20,000)에서 5만 페소(P50,000)까지 부과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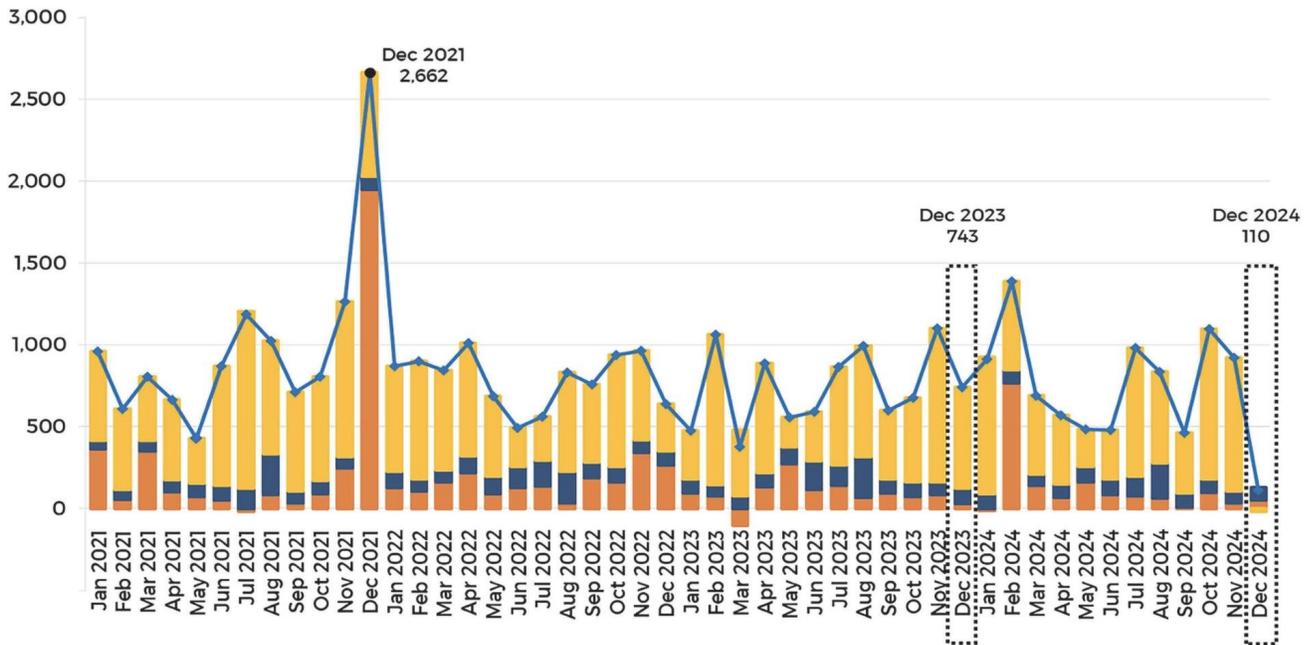
이에 포함되는 위반 사항은 사업장 미등록, 직업 안전 교육 미이수, 의료 시설 및 안전 담당관 미비, 개인 보호 장비 미제공, 기타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OSH) 기준 미준수 등이다.

근로자들은 위험한 근무 환경을 경험하거나 위반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경우, **DOLE 핫라인 1349**로 연락하거나 지역 및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5/03/10/658140/world-bank-says-phl-can-boost-revenues-by-expanding-its-vat-base/>

12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85.19% 급감... 11년 만의 최저치

March 11, 2025 | Jimmy Calapati | Malaya Business Insight



분석가들: “관망할 시기... 2분기 반등 가능성”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 투자(FDI) 순유입이 2024년 12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85.19% 급감한 1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월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는 2013년 12월 1억 200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순유입 수준이라고 한 분석가는 평가했다.

BSP는 2024년 12월 FDI 순유입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거주 기업들이 비거주 직접 투자자들에게 대한 부채 상환을 늘린 점을 지목했다. 2023년 12월 FDI 순유입은 7억 4,300만 달러였다.

2024년 11월 FDI 순유입은 9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8% 감소했다.

분석가들은 투자자들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BSP의 예상되는 정책 금리 인하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켜보며 ‘관망’ 전략을 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SP는 2024년 1월~12월 전체 기간 동안 FDI 순유입이 89억 3,000만 달러로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했으며, 전년 기록한 89억 2,500만 달러 대비 0.1% 증가했다고 밝혔다.

급감의 원인

BSP는 “비거주자의 순자본 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주 기업들의 비거주 직접 투자자에 대한 부채 상환 증가로 인해 FDI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부채 상환 증가로 인해 2024년 12월 외국인 부채상품 투자 순유입은 2023년 12월 6억 1,800만 달러에서 순유출 1,900만 달러로 전환되었다. 한편, 비거주자의 순자본 투자는 2023년 12월 3,100만 달러에서 2024년 12월 4,900만 달러로 58% 증가했

자본의 출처

BSP에 따르면, 2024년 12월 유입된 지분 자본은 주로 싱가포르,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투자는 주로 정보통신, 제조, 금융 및 보험, 건설, 부동산 산업에 집중됐다”고 BSP는 밝혔다.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필리핀으로 실제 유입된 자본을 측정하는 지표로, 비거주 직접 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Cont. page 5]

12월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유입, 85.19% 급감... 11년 만의 최저치

[Cont. from page 4]

FDI에는 비거주 자회사 또는 계열사가 거주 직접 투자자에게 수행한 투자도 포함된다.

·기다려보자'의 시간

BDO 수석 전략가 조나단 라벨라스(Jonathan Ravelas)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트럼프의 당선 속에서 이번 하락세는 '좋은 기다려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FDI(외국인 직접 투자)는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하반기에 회복될 수 있다"고 라벨라스는 덧붙였다.

RCBC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리카포트(Michael Ricafort)는 2024년 12월 FDI 순유입 급감이 부분적으로 CREATE MORE 법안의 시행규칙(IRR) 발표를 기다리는 영향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행규칙은 2025년 2월 17일 발표되었다.

2024년 11월 11일 법률로 제정된 CREATE MORE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필리핀을 보다 경쟁력 있고, 투자 친화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책임 있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다.

리카포트는 "향후 몇 달 동안 CREATE MORE 시행규칙 발표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 및 FDI가 보다 결정적으로 필리핀을 투자처로 고려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FDI 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미국 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 수입품 관세 인상, 상호 관세 및 기타 보호무역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금리 인하를 기다리며 보다 공격적인 FDI 투자를 유보하고 있을 수도 있다. 2022년 이후 비교적 높은 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리카포트는 덧붙였다.

그는 BSP의 추가 금리 인하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투자 및 확장 프로젝트에 대한 FDI 유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SP는 자사의 FDI 통계가 다른 정부 기관의 투자 데이터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BSP의 FDI 데이터는 실제 투자 유입액을 반영하는 반면, 필리핀 통계청(PSA)이 발표하는 승인된 외국인 투자 데이터는 투자유치기관(IPAs)으로부터 수집되며, 이는 투자 약속(commitments)을 나타내지만 특정 기간 내에 반드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BSP는 "PSA의 데이터는 BSP에서 정의하는 10% 이상의 외국 지분율 기준을 반영하지 않으며, PSA의 외국인 투자 데이터에는 **지분 철회(equity withdrawals)**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fdi-dec-net-inflows-plunge-85-19-to-11-yr-low/](https://malaya.com.ph/business/business-news/fdi-dec-net-inflows-plunge-85-19-to-11-yr-low/)

BIR, 소득세 신고 조기 제출 촉구... 마감일은 2025년 4월 15일

March 07, 2025 | Mariel Celine Serquiña | GMA Integrated News



필리핀 국세청(BIR)은 납세자들에게 정확한 세금을 납부하고 2025년 4월 15일 이전 또는 그날까지 연간 소득세 신고를 조기에 제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BIR 케손시티 지부는 3월 4일 2025년 지역 세금 캠페인 개막식을 개최했다.

"정직한 세금, 모두의 성공(Buwis na Tapat, Tagumpay Nating Lahat)"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납세자들은 국가의 경제 회복 및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것을 독려받았다.

납세자들은 BIR 웹사이트에서 전자 신고 및 납부 시스템(EFPS, Electronic Filing and Payment System) 또는 **전자 국세청 신고 양식(eBIRForms, Electronic Bureau of Internal Revenue For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세금은 승인된 대리 은행 또는 각 세무서의 세금 징수 담당관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국민들은 BIR의 챗봇 **"Revie"***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ource: 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38601/bir-urges-early-filing-of-income-tax-returns-deadline-on-april-15-2025/](https://www.gmanetwork.com/news/money/economy/938601/bir-urges-early-filing-of-income-tax-returns-deadline-on-april-15-2025/)

일로코스 노르테, 동남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주목

March 09, 2025 | Louella Desiderio | The Philippine Star

마닐라, 필리핀 —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센터와 일로코스 노르테 주정부가 PPP 프로젝트 시행을 통해 이 지역을 동남아시아의 주요 경제 허브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성명을 통해, 지난 2월 28일 케손시티에 위치한 PPP 센터 사무실에서 양해각서(MOA)가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PPP 센터의 마리아 신시아 에르난데스(Ma. Cynthia Hernandez) 사무총장과 일로코스 노르테 주지사 매튜 마르코스 마노톡(Matthew Marcos-Manotoc)이 주도했으며,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 NEDA 장관과 제프리 마날로(Jeffrey Manalo) PPP 센터 부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MOA)는 PPP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일로코스 노르테의 인프라 개발을 개선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프로젝트 검토, 승인, 조달, 시행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 PPP 추진 과정의 다양한 단계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일로코스 노르테를 지역 경제 허브로 변모시키기 위해, 라오악 국제공항에서 중국, 홍콩, 대만을 오가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로코스 노르테와 주요 국제 시장 간 연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장려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농업 부문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데이터 센터 및 제조업 분야에서 혁신을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를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NEDA 장관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강점을 활용함으로써 자원을 동원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개발 노력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PPP가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PPP 센터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인프라 격차를 해소하고 민간 부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PPP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발리사칸 장관은 “MOA에서 제시된 활동과 주정부가 계획한 프로젝트들이 다른 지방 정부 및 이행 기관들에게 PPP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변화를 이루는 데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3/09/2426882/ilocos-norte-eyed-economic-hub-southeast-asia](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5/03/09/2426882/ilocos-norte-eyed-economic-hub-southeast-asia)

NTC, SIM 카드 등록 시 대면 확인 의무화 검토

March 11, 2025 | Tyrone Jasper C. Piad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is looking into requiring personal appearance for SIM card registration. INQUIRER FILE PHOTO

마닐라, 필리핀 - 국가통신위원회(NTC)는 SIM(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 등록 시 대면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개인 신원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NTC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현재 온라인 등록 절차가 신원 판매를 악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문자 사기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 규제 당국과 통신업체들은 사전에 등록된 SIM 카드가 불법적으로 판매되어 문자 사기에 악용되는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러한 범죄가 적발될 경우, 관련자는 6개월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10만 페소에서 30만 페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NTC는 이전에 통신업체들에게 “SIM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미 등록된 SIM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공식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통신업체들은 지난해 33억 건 이상의 스팸 문자 메시지를 차단했으며, 사기 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310만 개 이상의 SIM 카드를 비활성화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11823/ntc-looks-into-requiring-personal-appearance-for-sim-card-registration](https://business.inquirer.net/511823/ntc-looks-into-requiring-personal-appearance-for-sim-card-registration)

UPCOMING EVENT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 Inc.

30TH 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

April 3, 2025 (Thursday) 05:00pm
Orchard A & B, 5F Ascott Hotel BGC

R.S.V.P.
Ms. Chi | Ms. Sang

☎ (02) 8885-7342
✉ info@kccp.ph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KCCP)는 오는 **2025년 4월 3일(목) 오후 5시에 Ascott Bonifacio Global City의 Orchard A & B(주소: 5th Ave. 코너 28th St., Bonifacio Global City, Taguig City)에서 **제30회 정기총회(Annual General Membership Meeting)**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KCCP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30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필리핀 내 한국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협력 관계 강화를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됩니다.

행사에 대한 **스폰서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KCCP 사무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632-8885-7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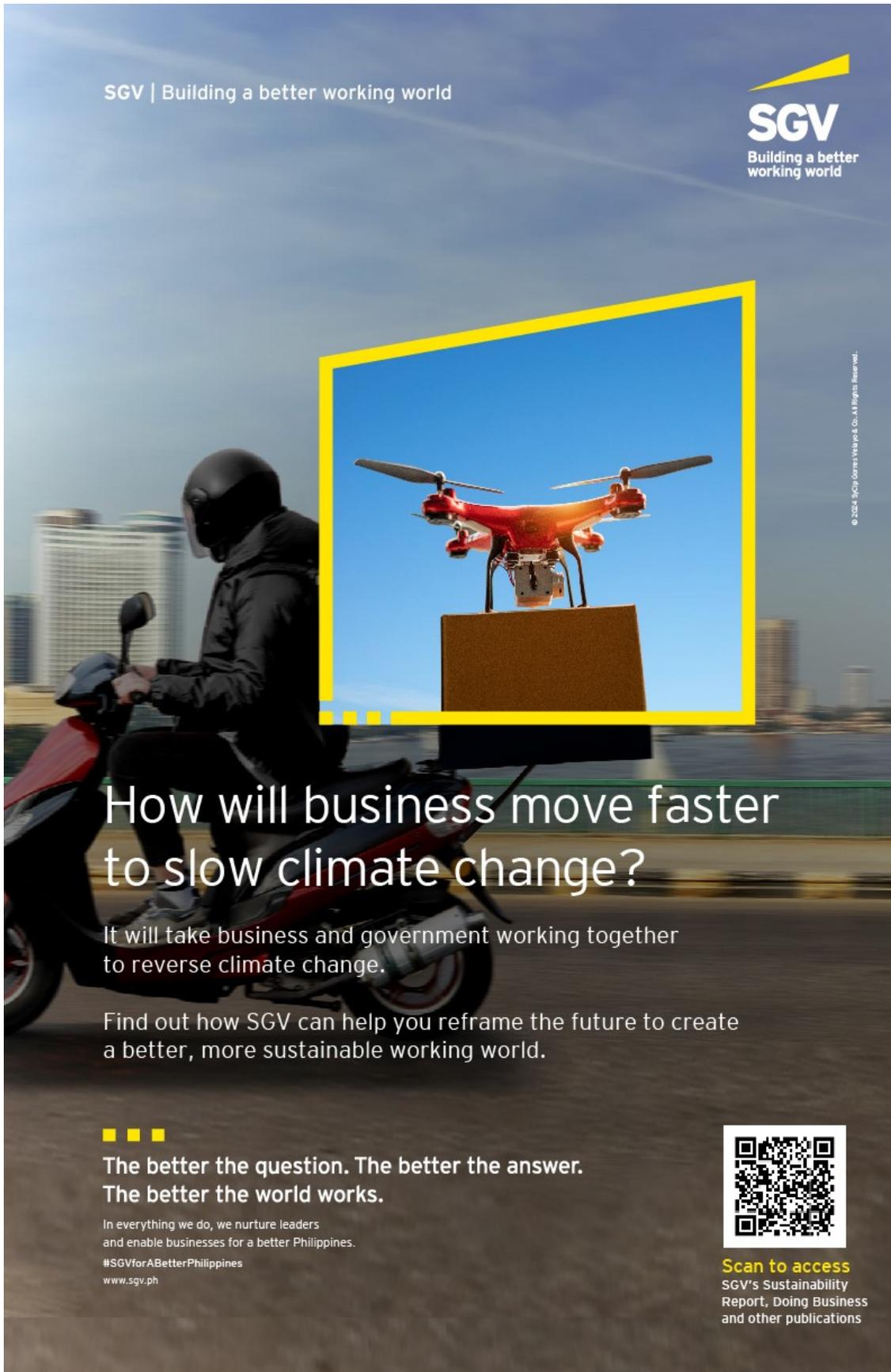
휴대전화: 0917-8015920 (Chi) | 0915-8887296 (Sang)

이메일: info@kccp.ph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SGV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SGV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 2024 SGV Group Vantage Co., All Rights Reserved.

How will business move faster to slow climate change?

It will take business and government working together to reverse climate change.

Find out how SGV can help you reframe the future to create a better, more sustainable working world.

■ ■ ■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In everything we do, we nurture leaders and enable businesses for a better Philippines.
#SGVforABetterPhilippines
www.sgv.ph



Scan to access
SGV's Sustainability Report, Doing Business and other publications